

제9회 동시지방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더불어  
**민주당**

영암군 의회의원 선거  
다선거구  
군서, 서호, 학산, 미암

**부지런하고  
성실한  
일꾼!**

미암, 학산, 서호, 군서면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겠습니다

**1-나 박종대**

기호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 영암군의회의원선거 다선거구

###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1-나	더불어민주당	박종대	남	1957.07.01. (만 68세)	영암군의회 의장	동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전) 영암군 군서면장 현) 영암군의회 의장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664,378	332,903	326,635	부: 4,840	장남: 고지거부 차남: 고지거부 장녀: 고지거부 삼남: 고지거부 손자1: 없음	육군 일병 복무완료 (소집해제)	해당없음	장남: 육군 병장(만기전역) 차남: 육군 병장(만기전역) 삼남: 육군 병장(만기전역)

###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27,399	0	0	해당없음
후보자	1,676	0	0	
배우자	644	0	0	
직계비속	25,079	0	0	

### 4. 소명서

---



---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서, 서호, 학산, 미암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일해 온  
기호 1-나번 **박종대**입니다.

저 박종대는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미암, 학산, 서호, 군서면에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저 박종대  
여러분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더 보고, 더 듣고, 더 살피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군의원후보 **박종대** 올림





“

**탄탄한 행정경험과  
4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





“

**이재명 국민의 정부 비전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미암, 학산, 서호, 군서면민 여러분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작은 민원도**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





# 군서, 서호, 학산, 미암면을 지역 소멸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

###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농특산물 병해·냉설해 피해 보상 확대
- 임대용 농기계 기종 증대 (포크레인, 승용관리기, 승용예초기, 방제용드론 등)
- 전담 진입로, 용수로, 농로 등 생산시설 기반 구축
- 영암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전 두수 지원 추진

## 사회복지

###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여성과 어르신 돌봄 서비스 증대(의료 및 운동기구 등 확대)
- 버스와 택시 이용 간편서비스 체계 지원
- 고령인 대상의 찾아가는 복지버스 운영 지원 확대
- 귀농, 귀촌 통합지원 패키지 개발 지원

## 문화관광

### 미암, 학산, 서호, 군서의 문화 향유 서비스 강화

- 미암, 학산, 서호, 군서권 마을축제 지원 확대 (공연전문가, 프로그램 연수 등)
- 월출산, 은적산, 학산, 선황산 등을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 개발
- 군서, 서호, 학산, 미암의 역사문화유산 및 인물 발굴 홍보
-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경관 사업 지원 확대

## 의정

### 부지런하고 발로 뛰는 선진 의정상 구축

- 주민들과의 소통 채널 상설화
-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의정 구현
- 전년도 불용예산, 낭비성·관행적 예산 심의 강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걸맞는 조례 제·개정 선도



## 지난 4년, 일 잘하는 의원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4년, 우리 군서, 서호, 학산, 미암이 영암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30년 영암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놓쳤는지 어디서 길을 잃었고, 어디서 길을 찾았는지 본지는 1995년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영암이 걸어온 30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확인된 사실과 객관적 데이터, 그리고 30년 동안 생생한 증언을 통해 영암이 써 내린 역사를 기록한다. 과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바꾸는 지름이며, 미래를 여는 열쇠다. 이것이 본지가 영암 지방자치 30년의 재력을 되찾는 이유다. <편집자주>

영암 지방자치 30년 특별기획 제4부 - 의정을 말하다 ①

### 공무원에서 의장으로, 박종대가 말하는 ‘협력의 정치’ “의회와 집행부의 목표는 같다, 근무처만 다를 뿐”

- ▶ 글 쓰는 순서
- ① 1995년 6월 27일, 영암의 선택 - 862표가 만든 역사
- ② 데이터로 본영암 30년: 양적 성장 속 질적 과제
- ③ 증언 - 지방자치 30년을 관통한 목소리
- ④ 의정을 말하다 - 현직 군의원 인터뷰 1
- ⑤ 미래를 본다 - 지구 간수 후보들의 비전

본지는 제4부 ‘의정을 말하다’를 통해 현직 의원 3명의 목소리로 영암 의정 30년을 조명한다. 서영암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박종대 의장, 산업중심지 삼호읍에서 4선을 이어온 강찬원 의원, 선출직 여성의원으로서 영암읍을 대표하는 고희자 의원. 각기 다른 배경과 철학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영암 의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들여다본다. 그 첫 번째 주자는 박종대 의장이다.



▲ 박종대 영암군의회 의장

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곧 바뀌었다. “이 보라미 의원님 같은 분은 일요일도 없이 사무실에 나와서 업무연찬을 하신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날 영암군의회가 있게 된 겁니다.”  
영암군의회는 1991년 11개 읍면에서 1명씩 11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지역구 7명, 비례 1명으로 총 8명이다. 의원 정수는 줄었지만 역할은 오히려 커졌다는 것이 박 의장의 평가다.

**전남 최초 ‘상생·소통 정책실명회’ 정착**  
박 의장이 추구하는 의정 철학의 핵심은 ‘협력’이다. 지난 3월 25일 영암군청 남산실에서 열린 전남 최초 ‘상생·소통 정책실명회’가 대표적이다.  
“제 공직 경험에도 없었고, 전남에서

부의 협력이 제도화되고 있다.  
실제 성과도 이어졌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327억 원), 미곡처리장 현대화사업(230억 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월출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은 의회가 먼저 제안한 사업이다.  
“겉으로 보면 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제안하여 이뤄진 사업들이 무수히 많습니.”

**초선 의장의 독특한 강점**  
박종대 의장은 초선이지만 의장직을 맡았다. 30년 공직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공직 생활 덕분에 의원과 공무원 양쪽 입장을 모두 이해합니다. 현장에 수시로 방문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대안

에서 각각 의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2명이죠”라고 설명했다.  
실제 데이터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다. 본지가 1995년 영암군 통계연보와 2025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4개 면의 인구는 1995년 12,076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8,495명으로, 30년간 약 29.7% 감소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다. “군서면 왕인문화축제, 서호면 관광자원, 학산면 낙지마을, 미암면 자연휴양림과 달코미 마을,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서영암권역을 정주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업 구상도 밝혔다. “군서면과 서호면 절경지에 대규모 파크 필드장을 조성하려 합니다. 미암 파크골프장과 연계해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생

업도 있다. 영암고과와 영암여고 통합이다.  
“김철호 군수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고,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선거 직전 군수님이 모든 것을 보류해 버렸죠. 김일태 군수 때도 장만채 교육감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유야무야됐습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선거 때마다 뒤로 밀렸다는 것이다.  
“요즘 다시 학교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 중 하나죠. 성사만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소멸위기 극복, “특별법과 균형발전”**  
박 의장은 영암의 최대 과제로 인구 소멸 위기를 꼽았다. “대불산단 같은 국가산업단지는 국제 경제세나 경기 위기에 따라 지역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시대, 협력의 정치로”**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균형발전’이다. 그는 2022년 인터뷰에서 “영암읍과 삼호읍에 부자가 집중”되는 반면 “군서, 서호, 학산, 미암면은 예로부터 영암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이 4개 면이 영암의 핵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주권시대, 협력의 정치로”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면 박 의장은 “국민주권시대”를 강조했다. “5·18민주화 운동으로 우리는 군부독재를 이겨냈고, 1991년 지방자치가 살아났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이 된 것이죠.”  
그가 말하는 미래 30년의 방향은 명확하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군수나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 종이자 하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주인인 국민의

앞으로의 4년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일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1-나  
기호

박종대



박종대가  
걸어온길

- 전남 영암군 군서면 평리 출신
- 구림초등학교, 구림중학교, 구림실업고등학교, 순천농림전문학교, 동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전)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장, 영암읍장, 군서면장
- 전) 영암군 초대 서울사무소장
- 전) 전국기초자치단체 서울사무소 초대회장
- 전) 순천대학교 영암군 총동문회장
- 현) 영암군 유도회 군서면 지회장
- 현) 신라오능보존회박씨대종친회 군서면 분회장
- 현) 구림초등학교, 구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현) 민선 9기 하반기 영암군의회 의장

포상

- 국무총리(모범공무원표창, 2008)
- 대통령표창(2015)
- 녹조근정훈장(2017)

선거사무소 | 전라남도 영암군 도갑사로 6 T. 010.3272.0098

인쇄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008 지음 T. 061.464.3736